

‘해결사’ 김상현 끝내줬다

끝내기 홈런포... KIA, 4위 롯데와 2게임차

‘해결사’ 김상현이 끝내줬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9회말 김상현의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3-2로 짜릿한 재역전극을 펼쳤다. KIA는 주말 4위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1패를 거두며 2경기차로 추격했다.
‘0’의 행진이 이어지던 4회 양팀이 1점씩 주고 받았다. KIA 선발 이대진이 1사 이후 연속안타와 볼넷으로 만루의 위기를 맞았다. 먼저 투수 교체 카드를 빼어든 KIA가 유동훈을 투입했다. 유동훈은 첫 타자 김주찬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KIA의 4회말 김선빈의 발이 승부

를 원점으로 돌렸다.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김선빈이 2루 베이스를 훔친 뒤 다시 한번 3루 진루를 시도했다. 포수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김선빈은 3루에 이어 홈까지 파고들면서 1-1 동점을 만들었다.
5회말에는 안치홍과 김원섭이 연속해서 볼넷을 골라내면서 무사 1·2루의 기회를 잡았다. 이현곤의 희생번트와 이용규의 희생플라이를 묶은 KIA는 2-1 역전에 성공했다. 전세를 뒤집은 KIA는 마운드 총공세를 벌이며 승리 지키기에 나섰다.
안영명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좌정철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지난 5일 성적 부진으로 2군으로 추락했던 좌정철은 복귀전에서 2이닝 동안 6타자를 버터로 돌려세우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9회에는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이 등장했다. 윤석민은 13일 8회 2사 1·2루에 등판해 이대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이날은 출발이 좋지 못했다.
첫 타자 손아섭에게 볼넷을 내준 윤석민이 1사 2루에서 조성환에게 중전안타를 얻어맞으며 2-2 동점을 허용했다. 홍성흔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1·2루까지 풀린 윤석민이 10경기 연속 홈런에 도전하는 이대호와 만났다. 윤석민은 7구까지 가는 승부끝에 이대호를 우익수 플라이로 요리하며 투 아웃을 만든 뒤 가르시아를 2루수 앞 땅볼로 돌려세웠다.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진행된 9회말 1사에서 김상현이 롯데 이정훈과의 대결에 나섰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던 김상현은 이정훈의 직구를 받아 우측담장을 넘기며 주말 3연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가득 채운 야구 팬들이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롯데 이대호 세계 홈런 역사 새로 썼다

14일 KIA 원정서 9경기 연속 홈런포



롯데 자이언츠의 거포 이대호가 세계 프로야구 홈런기록을 다시 썼다. 이대호는 14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KIA와의 원정경기에서 9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2회 1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이대호는 KIA의 두 번째 투수 김희걸의 포크볼을 공략했다. 이대호의 배트에 걸린 타구는 무등구장 외야펜스 중앙에 위치한 그린 몬스터를 훌쩍 넘어갔다. 비거리 125m짜리 대형 홈런은 이대호의 시즌 38호이자 세계 기록이 된 9경기 연속 홈런이었다.
지난 4일 두산과의 잠실 경기에서 솔로포를 기록했던 이대호는 9경기에서 연속 손맛을 보며 미국 프로야구 켄 그리피 주니어(시애틀·1993년), 톤 매틸리(뉴욕

양키스·1987년), 대일 톱(피츠버그·1956년)이 기록한 8경기 연속 홈런기록을 넘어섰다.
두산 3연전에서 김선우를 시작으로 임태훈·정재훈에게 홈런을 뽑아냈던 이대호는 7·8일 한화 안승민·류현진을 공략했고, 11·12일에는 삼성 배영수·안지민에게 피홈런을 안겨줬다. 13일에는 KIA의 로페즈 그리고 14일에는 김희걸이 희생양이 됐다.
한편 세계 프로야구 역사가 된 9번째 홈런포의 향방은 경매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14일 그린 몬스터를 넘어 외야에 떨어진 공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온 임모씨의 손에 들어갔다. 전날 8번째 홈런볼에 에어컨을 내걸었던 롯데 구단은 냉장고를 경품으로 제시했지만 공을 잡은 임 씨는 경매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공고 송중훈 청소년 올림픽 첫 금

펜싱 사브르 伊 아페디 꺾어

전남공고 송중훈이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펜싱 유망주 송중훈(17)은 15일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아페디를 15-8로 누르고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을 신고했다.
송중훈은 앞서 독일의 리처드 우베르스와의 준결승에서 15-1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송중훈은 주니어 세계랭킹 1위인 우베르스

를 상대로 전반을 3-8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전반 동안 우베르스의 움직임에 파악한 송중훈은 후반 들어 상대 공격을 절묘하게 받아치는 역습으로 거꾸 점수를 따내 대역전승을 거뒀다.
올해 세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서 23위에 그쳤던 송중훈은 이날 오전 열린 예선 풀리그에서 5전 전패를 당해 끝까지 토너먼트에 출전했지만 16강에서 헝가리의 스타트마리에 15-1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뒤 8강에서 프랑스의 아서 작코를 15-11로 꺾은 뒤 주니어 세계랭킹이던 16강에 진출했다. /연철뉴스



광주일고 봉황기 4강행 좌절

야탑고에 2대 5패

고교 야구 마지막 무대를 우승으로 장식하려던 허세환 감독의 꿈이 무산됐다.
고교야구 최고의 명장 허세환 감독이 이끄는 광주일고는 15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제4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서 약체 야탑고에 2-5로 패했다.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유창식은 홈런포를 6개의 안타

로 3실점을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선취점은 광주일고가 냈다. 백세웅의 2루타로 시작된 1회말 김요셉의 우전안타가 터지면서 1-0이 됐다.
하지만 2회초 광주일고 선발 이정호가 연속해서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다. 3루수의 송구실책까지 겹치면서 1-2로 역전이 됐다.
2회말 백세웅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광주일고는 에이스 유창식을 투입하며 야탑고

공략에 나섰다.
2-2의 팽팽하던 힘대결이 전개되던 8회초 유창식이 한밤을 허용하면서 광주일고가 무너졌다. 유창식이 8회초 1사 1루에서 야탑고 김성민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한 뒤, 9회 변만우에게 1타점 내야안타로 추가 실점을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야탑고 2학년 신유원은 7과3분의1이닝동안 무실점으로 광주일고 타선을 막으며 대회 3승째를 신고했다.
허 감독은 이 대회를 끝으로 광주일고 지휘봉을 놓고, 인하대학교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OLFZON featuring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Gwangju Best Facility Screen Golf Course) with images of the course and clubhouse.